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40호

발행일 : 2019. 8.11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2019



순교자로 가신다면
양귀를 달는데 양귀가 없기를 바라며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농부의 가정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하신 후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셔서 저희 형제들 또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온유시고 강직하신 성품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새벽기도회 신앙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셨으며 아버님의 기도의 신

은 자녀 중에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열어 주셨습니다.

병환 중에 계셨던 아버님은 가곡교회 성도님들과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가셨는데 지금도 아버님의 임종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대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20여년을 타지에서 보내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깨달지 못할 만큼 나의 신앙은 무더져갔고 그로 인해 영혼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으나 실상은 껍데기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지쳐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고향을 향한 마음을 불일 듯 일게 하셨는데 마침 이직을 통하여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끊임없이 부르셨음을 깨달으면서 고향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나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먼저 된 자들의 다툼과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그 곳에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없음을 깨달으면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
습
셨
앙

그러던 차에 처남 부부가 다니는 당진순복음교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20여분의 거리와 직장과 병행하는 시골 농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쉽지가 않더라구요.

더욱이 기존에 알던 교회는 제가 보기에 공적 예배만 드려도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 당진순복음교회는 제가 알던 교회보다도 행사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에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기 싫어하는 아내 이금자권사를 보니 어느 때는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다니면서도 핍박을 했고 아내가 저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더 헌신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있더라구요.

여전히 예배 시간에는 피곤한 두 눈이 감기는 것과 싸우고 있지만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열정과 화목을 만나는 이들에게 자랑하는 집사가 되었답니다.

늦은 나이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며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 제직이 되게 하심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지식으로나 몸의 바지런함으로는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가능하다면 임직을 받는데 걸림이 없기를 바라며 목사님을 잘 협력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슬하에 두 아들을 주셨고 장성하여 귀한 베필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엿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작은 욕심이 있다면 큰 아들의 가정이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고, 둘째 두 식이의 가정에는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존귀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짧은 글로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 못하고 값울 길이 없겠지만 아버님의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저 또한 자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봉녀

권철남

알아가기



하나뿐인
아들

등직한
남편



성도 알아가기

박봉녀 권찰

1. 권찰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 해 주세요.

강원도 인제에서 부모님과 살았고 2남 2녀 중 저는 장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초까지는 학교에 가려면 배를 타고 다녀야 하는 시골이었고요. 부모님 일하러 나가시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마솥에 밥도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태워 먹기도 했었구요. 4학년 2학기에 춘천으로 이사 나오게 됐고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맏딸이다 보니 막내 동생 기저귀 갈아주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2. 매우 깔끔하시고 살림을 잘 하시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비결 좀 말씀 해 주세요.

저는 깔끔하거나 살림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말씀 드리자면 그냥 눈으로 볼 때 흐트러져 있거나 지저분한 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치우고 정리를 합니다. 사실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결코 깔끔하지 않답니다.

3. 화초를 아주 잘 가꾸시지요? 잘 자라나고 꽃을 피운 화초들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사랑을 주며 물을 주고 가꾸어서 꽃을 피우며 새파란 잎을 뽐내는 화초들을 보면 너무 흐뭇하고 좋아요. 자식이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면 기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긴 장마에 햇빛이 없고 습기가 많고 바람이 적어서 애내들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속상해요.

4. 아들 원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도하고 있나요?

원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순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구별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우리 원이가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해서 잘 구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부가 좋지 않아요. 점측성 피부염이 있는데 때로 상처가 생기고 진물 나는 것을 보면 매우 속상하거든요. 모든 육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주말 부부로 지내시지요? 평소 남편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남편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어머니를 항상 걱정하고 챙기는 효자이구요~ 아들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좋은 아빠고요. 아내인 제게도 정말 자상한 남편입니다. 특히 제가 일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좀 더 배려해 주네요. 그리고 남편 없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바쁩니다. 성경도 읽어야하고 아들도 챙겨야 하고 화초도 키워야 하구요. 또 짬을 내서 도자기도 빚고, 특히 요즘은 배드민턴도 시작해서 더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6. 동안이십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관리 하나도 안하고 얼굴에 스킨하고 로션만 바르고 다닙니다. 요즘 주근깨랑 검버섯도 생기고 있어요. 솔직히 잘 보일 사람도 없어요 ㅋㅋ 그런데 요즘 살이 찌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살이 찌나보니 운동 연습할 때 좀 힘들어요.

7. 요리 되게 잘 하시잖아요~ 내가 먹어도 진짜 맛있는 나만의 필살기 요리는 무엇인지요?

~~ 없는데요~~~ 잘 하는 건 아니고 자주 하는 음식만 합니다. 그냥 하는데 남들이 맛보면 맛있다고 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8. 요양 보호사 시작하셨잖아요. 일하기 어떠세요?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고요. 어린애가 된 어르신들 기분 맞춰주고 음식 만들어 식사 챙겨 드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3시간 30분 일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이 저한테 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들 하세요. 이 일은 보람있는 일입니다.

9.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있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예배나 모임도 다 참석하기 힘들었고요. 재작년엔 모임에 거의 참석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작년부터는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게 먼저 와서 챙겨주길 바라지 않고 제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도 걸고 장난도 살짝 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10. 신앙에 연륜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따라 1년 정도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 후 중흥리 교회에서 선물준다는 말에 한번 갔던게 계기가 돼서 몇 번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우리 교회를 만났구요. 어머니랑 같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머니한테 이끌려 나가는 교회였기에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심도 많았고 무엇보다 무척 졸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달라졌답니다. 졸리지도 않고 말씀이 이해되고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구요.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내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것처럼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말씀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켜 몸에 소름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11.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좀 헛살았습니다. 나쁜 짓도 좀 하면서요. 좀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며 당당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엄청 부럽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 부러우면서도 좋아 보입니다.

12. 반대로 정말 잘했다 싶은 일을 스스로 칭찬해 보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삶에 방향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거든요.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처음엔 부담이더니 지금은 그런 행사와 모임들이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게 해 주니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내 자신을 칭찬합니다.

13. 시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장점, 단점을 말씀 해 주세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요. 특히 앞에서 율동을 할 때면 어머니께서 저만 보시거든요. 그땐 또 너무 부끄러워요ㅋㅋ 하지만 가까이에 어머니가 계시니 남편이나 원이가 자주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서로 얼굴보며 의지하며 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4.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무엇을 느끼며 권찰님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싫은 일을 하려면 얼굴에서 금세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솔선수범하시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잘하시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대단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율동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저도 빨리 집사님들처럼 멋지고 예쁘게 율동 잘하고 싶습니다. 율동 잘하시는 집사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15. 항상 신앙이 어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권찰님께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을 때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계속 좋아질 겁니다.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을 지켰으며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고 노력하며 극복해 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또 모두가 와서 편히 쉬며 함께 수다도 떨 수 있는 내면이 포근한 자로 남고 싶습니다.

16. 혹시 우리 교회에 무서운 분이나 반대로 너무 좋은 사람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구옥순 집사님도 선뜻 말 걸기 어려운 분위기를 물씬 풍겼었는데 같은 구역을 하며 섬기다 보니 좋아졌구요. 인성자 집사님은 웃지 않으시면 화난 것 같으니 많이 웃어주세요. 김미진 집사님은 율동 가르치실 때 카리스마가 너무..... 살살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이분들의 확실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은 꼭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순옥 성도님이 좋습니다. 같은 구역이고 같은 기관이고 하다 보니 친해졌고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자라온 환경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저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부탁도 잘 들어줍니다. 저에 베프입니다.

17.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 대해 느낀 점 말씀 해 주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목사님! 이십니다. 성도들에게 편하게 대해 주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용기 내서 한 번씩 장난칠 때가 있긴 하지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또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철저하신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우러러 보입니다. 저도 목사님의 신앙을 그대로 닦아가길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장애은 어린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다투지 않고 서로 격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조장으로 세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천로역정 때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성경학교는 '옳은 일을 하라' 라는 주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니엘 유초등부가 룯과 다니엘과 스테반처럼
옳은 선택, 옳은 행동, 옳은 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에 좋은 분이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수고 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 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딸의 고백

언제까지나 품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저 엄마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아기로 있을 것만 같았던 두 딸은 어느새 장성하여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덩그러니 남편과 나만 남았습니다. 간간히 집에 오지만 엄마의 반가운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쁘게 다시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크게 보이고 그렇게 야속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룻저녁 마음껏 먹이고 편하게 잠재우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딸아이는 금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기 시작하곤 하지요. 그러면 전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이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여 귀담아 들곤 합니다. 그러다가 한시간만 더... 30분만 더... 야속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겨우 잡아 놓고 딸과의 수다는 어느덧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야기의 흐름이 깨질까 염려되어 간절하게 가고 푼 화장실도 참아가며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대화 중간 중간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열심히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꼭 알려 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곤 합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짧은 글로 마주하는 것은 딸과 밤새도록 나누었던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엄마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부모님들은 모두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모르는게 자식이란거 혹시 알아? 내가 중학교 때 막 사춘기였었어. 엄마도 알지?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는거... 그때 나는 엄마 아빠도 무섭고 싫었어. 물론 교회도 엄마 때문에 억지로 다녔었어. 학교에 친구 몇 명이 있었는데 남들이 말하는 잘나가는 애들이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 그러나 최대한 얼굴에 표시내지 않고 놀라지 않은 척 하며 살짝 웃어주는 여유까지 보여 주었다) 그 아이들하고 물려다니며 공부보다는 엉뚱한 것에만 모든 신경을 쏟곤 했지. 그 중에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졌어.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데 그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어. 친구들은 모두 집이 싫었고 부모님도 싫었으니가 이참에 가출하기로 약속을 했지 뭐야.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짐을 싸두고 집을 나가기로 한 날이야.

친구들하고 모의하고 계획할 때는 금방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고 신났었는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겁나더라구. 가출했다 잘못해서 다시 집으로 잡혀 온 경우 하나 엄마 아빠의 모습은 최고로 무서웠어. 공포 그 자체였단 말이지... 결국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가출을 실제로 감행 해 버렸고 나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어. 그리고 그냥 학교에 갔지. 그런데 그 후 당연히 가출했던 친구들은 모조리 다시 잡혀 왔어 ㅎㅎㅎ 그 뒤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겠어. 약속을 어긴 내가 얼마가 미웠겠냐고~ 당연히 난 망파였어. 외롭고 괴롭고... 그렇게 방황하다 결국 그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새로 사귄 친구들은 착한 아이들이었어. 착한 친구들 덕에 내 생활은 다시 정상적으로 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중학교의 시절을 보내었는데 엄마는 전혀 몰랐지? 그런데 난 알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질 나쁜 친구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망파도 시켜 주시고 또 옆에 착한 새로운 친구도 데려다 주신 것음,,,,,, 항상 염려와 근심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했겠지. 엄마가 내 신앙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다 알아.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마. 나도 내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랑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 지금 잠시 이렇게 엄마 마음에 안들게 살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거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

딸에 말을 다 그대로 옮겨 적을 수가 없어 내가 들은 감동대로 들려줄 수 없는 글재주가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딸이 그동안 엄마의 기도와 간절함을 알고 있었다는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 부분에선 감사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딸에 인생은 정말이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지요. 지금 곱게 웃으며 내 앞에 앉아 조잘대고 있는 딸은 없었을테니 말입니다. 지금도 내 앞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과 열매 주심을 알기에 오늘도 난 참고 인내하며 오직 기도하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이 하루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갑니다.

순복음 성도

칭찬합시다!

유영민 학생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남학생을 요즘은 교회 오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는 이런 교회 오빠가 참 많다는 것 모두들 아시지요? 그 많은 교회 오빠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더 눈에 띄는 오빠 유영민 학생을 소개합니다.



어린 여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며 눈높이에 맞추어 놀아주기도 잘합니다. 또 짓곳은 남동생들에게는 큰 형처럼 놀아주며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 필요하면 군기도 잡아주고요. 어른들에게는 깍듯이 예절 바르게 행동하여 모두를 기쁘고 흐뭇한 웃음 짓게 하는 아들 같은 유영민 학생은 우리 교회의 어린 일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잘 감당해 내고 있지요. 또 축구부의 열정도 남다르기에 열심히 참석하여 모든 게임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땐 끝까지 남아 뒷일까지 술선수범하기에 뒤따르는 동생들도 보고 배운 듯 닦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민이도 먼저 된 형이나 누나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는 것을 알기에 영민이 이전에 본을 보인 교회오빠와 교회누나들의 덕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흐뭇하고 예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더 좋으셨을까요? 당진순복음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교회오빠 유영민 학생을 칭찬합니다. 성도님들도 칭찬과 격려, 축복을 아낌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릴레이

김경숙 성도

사랑하는 딸 민지를 건강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년동안 아픈 민지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몸에 기운이 없어 축 처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속상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지에게 식욕을 주셔서 잘 먹게 하시고 몸도 강건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 옆에 앉아서 종알종알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는 딸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주자 : 박순옥 성도



<다니엘 유치등부 소식>

비와 해가 번갈아가면서 오고 간 7월! 성도님들은 잘 지내셨나요?? 저희 아이들은 손도 마음도 풍성한 7월을 보냈는데요!

첫째 주는 ‘총극대회 준비’였습니다.

민이삭 선생님의 멋진 대본과 어린이들의 열연으로 잘 마무리된 맥추감사절 총극대회!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총극의 내용처럼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잘 이끌어야겠습니다.

둘째 주는 ‘상반기 시상과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상반기 시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시상을 진행했는데요. 인도상은 친구를 한번이라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는 백승민, 김다희, 유은하, 강유빈 어린이가, 정착상은 김주호 어린이를 인도하고 잘 정착시킨 황수현 어린이, 다독상은 성경을 많이 읽은 김다희 어린이가, 개근상은 26주의 상반기동안 교회에 꾸준히 나온 많은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양한 상을 주고, 상반기 동안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직접 원하는 물건을 사러 다이소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달란트를 들고 물건을 사고 하니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5,6월 생일자인 친구들의 생일파티도 열렸는데요. 생일인 백승민, 이영광, 박준희, 박재민, 유은하, 황수현 어린이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할게요. 이번 생일파티에는 대만 샌드위치를 먹고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 생일축하편지를 썼는데요. 진심(?)어린 편지는 저도 받고 싶네요. ㅎㅎ



셋째 주는 '여름성경학교 올동 배우기'였습니다.

마지막 주에 진행될 성경학교를 위해 성경학교 찬양과 올동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김성령, 강에서 선생님의 열심 있는 모습에 아이들 또한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 주는 26일~29일 까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는데요.

26일 금요일 아침에 개회예배를 하고 시작된 여름성경학교는 '옳은 일을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정해져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더욱 뜻깊었던 이유는 많은 새로운 아이들이 정착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정착 해 나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도 날씨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 할 수 있었는데요. 한 주간 비소식이 계속된다고 해서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금요일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올 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 동안에도, 금요일에 모여서도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기도했고, 성도님들의 기도 지원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있던 토요일에는 주님께서 해를 보이셨고, 아이들의 일정이 끝나자 수고했다고 말씀하듯이 소나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같이 박수를 쳤고, 저희는 모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성도님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여름성경학교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아
교회가자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운동만이
살길이다



언제까지 청춘이겠느냐
“관리하자”



이시대의
마지노선
계란한판

인생 한방이다
30대 준비하자
혹간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숨은그림: 두루마리 화장지, 대합(조개), 촛불, 나팔, 반지]

* 예수님 찾기 - essay.22-

nooriart@naver.com



***너의가 내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성경 사각 퀴즈. (형제는 가로 자매는 세로)

1)			2)		5)			6)
			3)	4)				
12)	13)					8)		
				7)			9)	
14)							10)	11)
						20)		
15)			17)		19)			
			18)					22)
16)					21)			

가로 열쇠

- 1) 삼손이 마시고 소생한 샘.(삿 15 :14~20)
- 3) 제사장이 된 자가 직분 수행 전에 거쳐야 하는 의식.
(출 29)
- 5)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눅1:26)
- 7)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
- 10)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더
어려운 사람.
- 12) 갈릴리의 다른 이름. 예수님 죽으신 후 베드로는
다시 이곳으로 (요 21)
- 14) 느브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은 히브리 청년.
○○○과 세 친구.

- 15) 전신갑주의 두 번째 (엡 6:14)
- 16) 삼손을 실패하게 만든 여자 (삿16)
- 18) 읍바에 살던 여제자. 병들어 죽었으나 베드로의
기도로 회생 (행 9:36)
- 19) 네 시작은 ○○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 (욥8:7)
- 21) 전능하신 하나님

세로 열쇠

- 1) 쫓기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벤 곳의 지명
(삼상 24:1)
- 2) 야곱의 셋째 아들. 제사장의 직을 맡은 지파.
- 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 1: 23)
- 5) 행동을 거짓으로 꾸임을 일컫는 말.
- 6)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했죠...(왕하 2:9)
- 8)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
- 9) 지옥의 다른 말.
- 11) 기록된바 ○○하는 자는 주안에서 ○○하라
(고전 1: 31)
- 13)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 (요11:1)
- 14)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 17) 말세에 일어날 일, 믿는 이들이 주를 버림 (살후2:3)
- 19) 하나님의 천사장 (유1:9)
- 20)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39권의 성경.
- 22) 여리고 함락 후 ‘아간’의 죄로 인하여 정복에 실패한
성 (수7)

심훈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 4학년 재학 중에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고 퇴학당했다. 8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후 중국 항저우로 건너가 저장 대학(浙江大学)에서 공부하였으나, 복역시절의 후유증으로 결국 중퇴했다. 1923년에 귀국하여 신극 연구 단체인 극문회를 만들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시와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26년에 동아일보에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 소설인 《탈회》를 연재 했는데, 이 때 철필 구락부 사건으로 동아일보에서 해직 당했다. 하지만 《탈회》를 계기로 영화계에 진출해 이듬해 이경손 감독의 《장한몽》에 배우로 출연했으며, 《먼동이 틀 때》의 시나리오를 쓰고 각색 및 감독을 맡았다.(필름이 남아 있지 않음) 동아일보에서 해직당한 그는 1930년 조선일보에 중편소설 《동방의 애인》을 연재했는데, 일본 경찰의 검열에 걸려 완성되지 못하고 집필이 중단되어 미완성 소설로 남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 모델이 박헌영과 주세죽이라고 한다.

1927년 12월 2일에, 조선일보에 "박군의 얼굴"이라는 시를 기고한다.

심훈은 박헌영과 경성고등보통학교 동창이고 친구 사이였는데, 박헌영이 신의주 사건으로 인해 형무소에 수감되고 1927년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이에 분노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여기서 박군은 박헌영을 가리킨다.

박군의 얼굴

이게 자네의 얼굴인가?

여보게 박군, 이게 정말 자네의 얼굴인가?

알코올 병에 담가논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마르다 못해 해면(海綿)같이 부풀어 오른 두 뺨

두개골이 드러나도록 바싹 말라버린 머리털

아아 이것이 과연 자네의 얼굴이던가

4년 동안이나 같은 책상에서
베틀 반찬을 다루던 한 사람의 박은 교수대 곁에서
목숨을 생으로 말리고 있고 (사에 마주앉아 붓을 잡을 때
황소처럼 튼튼하던 한 사람의 박은 모진 대에 창자가 꺾어서
까마귀 밤이 되었거니.

이제 또 한 사람의 박은
음습한 비바람이 스며드는 상해의 깊은 밤
어느 지하실에서 함께 주먹을 부르쥘던 이 박군은
눈을 뜬 채 등골을 뽐히고 나서
산송장이 되어 옥문을 나섰구나.

박아 박군아 (현영)아!
사랑하는 네 아내가 너의 잔해를 안았다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는 동지들이 네 손을 잡는다
이빨을 악물고 하늘을 저주하듯
모로 흘긴 저 눈동자
오! 나는 너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오냐 박군아
눈을 빼어서 갈고
이는 이를 뽐아서 꺾어주마!
너와 같이 모든 (한)을 잊을 때까지 우리들이 심장의 고통이 끊칠
때까지.

**** 한편 당진시는 2019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통성 있는 기념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대호지면 창의사와 정미면 천의장터를 복원하기 위해 당진지역 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본의 만행

731부대의 마루타 실험

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을 생체실험 재료로 사용했다. 그 대상이 한국인, 러시아인, 몽골인 등의 전쟁포로 어린아이, 노인, 여성, 심지어 임산부까지 희생자만 최소 3천명에 달한다.

우키시마호 사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약 9천명의 한국인들을 우키시마호에 태워 부산으로 가던 중 예정 항로를 벗어난 곳에서 일본군 2천여명은 하선 시킨 후 한국인들을 배 밑 선창으로 내려 보낸 후 침몰시켜 약 7천 5백여명의 한국인이 희생되었다. 이후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도 무시되었다.

강제징용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조선인 강제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그룹은 전쟁포로 신분으로 노역에 동원된 미국인에게는 직접 90도로 머리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관동 대학살

1923년 일본 간토 지방 규모 7.9 대지진 발생했다. 이로 인한 민란의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먹는 우물에 독을 타고 폭등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후 계엄령을 선포하여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했다.

코 무덤

일본 교토시에 위치한 코 무덤은 많은 사람이 관광지로 찾는 곳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과 보고용으로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보내라고 명령한다. 병사들은 1인당 3개의 코를 잘라 보냈다. 현재 교토 코 무덤에는 조선인 12만 6천여 명의 코와 귀가 묻혀 있다.

NO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일본의 만행이 있다. 그 만행 중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로 발생한 일본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강제징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인에게도 있었다. 일본은 강국인 미국에게는 머리 숙여 사과 했지만 약소국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게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불매 운동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 행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일본정부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며 그들의 잘못된 처사가 바로잡혀지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방국가의 진짜 모습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퍼즐 정답

엔	학	고	레		가	브	리	엘
계			위	임	식			리
디	베	랴		마		팔		사
	다			누	가	복	음	
다	니	엘		엘			부	자
윗						구		랑
의	의	흥	배		미	약		
아			도	르	가			아
들	릴	라			엘	샤	다	이

□ 특이한 면접 □

어느 일류대 졸업생이 한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는데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라고 다시 묻자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 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데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왜 발을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말없이 문턱에 걸터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는데 앙상한 발등이 나무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의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안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유머

* 아다리

바둑 두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목사님 한분이 계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주 간에는 여유시간만 있으면 바둑을 두었습니다. 주일 날이 되어 강단 위에서 보니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바둑의 아다리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흰머리, 검은 머리가 흰 바둑 알 검은 바둑 알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눈을 다시 한번 비비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기도드리셨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까지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 목사님이 대머리가 되신 이유

성도가 많은 교회는 형편이 다르겠지만, 성도가 적은 교회일수록 주일 낮 오전 10:30분 부터 오전 11:20분 까지는 목사님의 신경이 초긴장하는 시간입니다. "김집사는 왜 안올까, 박집사, 최집사, 이집사는?" 그러다보면 찬송가가 1절에서 3절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목사님의 머리를 까맣게 덮었던 머리가 집사,권사,장로,성도들이 예배당에 안 나올 때마다 하나, 둘 빠지더니 목사님은 어느덧 대머리가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머리는 "주변머리"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1분의 힘

평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처방전을 부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화가 치솟거든 처방받은 약을 물에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입안에서 1분이 지난 후에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가
민을 먹고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삭였기 때문입니다." 소통에 있어 1분이라는 시간의 힘은 위대합니다.

속담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흡이 안정되면 화도 가라 앉습니다.

1분만 참아보세요~ 1분만 기다려보세요~
잠시 후에 소통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부는 의사 말대로 화가 나면 약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지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더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약은 비타민입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비타

시사용어 Briefing

알데스코

사무실 책상 앞에서 급하게 먹는 점심을 말하는 용어. 과도한 업무로 점심시간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점심시간의 보장을 원하는 근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닥터 코퍼 (Dr. Copper)

경기 판단 지표로 쓰이는 구리를 말하는 용어. 구리는 전기와 열전도율이 높고 널리 매장되어 산업 전반에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경기 전망을 가능해주는 바로미터로 활용됩니다. 만약 구리 가격이 높다면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자신이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때 쓰이는 용어. 즉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프랑스에서 이 법이 시행중이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시행된 '호인법 개정안'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얼추 계승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니페스토

예산부터 시작해 추진 일정까지 구체적인 공약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말하는 용어. 당선을 위해 과장되고 허황된 선거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데 최근 후보자를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매니페스토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무언가의 사실이나 가설을 설명할 때 복잡하고 불필요한 가정보다는 단순한 예측이 가장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

압살롬(Absalom)

뜻 : 내 부친은 화평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제 3자로 그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다(삼하 3:3).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이스라엘 궁 제일의 미남자이다(삼하14:25). 미모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죽였다(삼하13:28-29).

부 왕을 두려워하여 그술 외가에 가서 3년간 있다가 요압의 주선으로 돌아 왔으나 2년간 부왕을 대면치 못하였다(삼하13:37, 14:1-3, 21:28).

그 후 반란을 일으켜 부왕을 궁경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 자칭하고 부왕의 군대와 싸우고 삼림 중에서 패주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삼하 15:7-12, 18:6-15).

다윗의 셋째 아들로 뛰어난 미남이며 부친에 반역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압살롬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라는 뜻이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매의 딸로 마아가였다. 그는 용모가 아름다워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에게 비길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났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책잡을 곳이 없을 만큼 미남으로 칭찬을 받았다. 압살롬에게 동복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그도 용모가 아름다웠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다말을 폭행했을 때 다윗은 이년이 지나도록 암논을 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 왕자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하였다. 그 후 그술로 도망하여 삼년동안 숨어살다가 요압의 지기로 드고아 여인의 비유를 듣고 다윗왕의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을 귀환시켰다. 그러나 압살롬은 부왕을 모반할 계획을 세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서 민심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기의 거사계획을 헤브론에서 세워 아히도벨과 함께 이백명의 군사 12지파의 지지자들로 나팔소리와 함께 왕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은밀히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된다. 그러나 에브라임에서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난다.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걸려 살해되고 만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바울남선 - 8월 4일 오후 7:30
2. 여름캠프 / 학청연합 - 8월 5일~6일
3. 헌신예배 / 주일학교 - 8월 18일
4. 종교개혁탐방 / 동유럽 - 8월 19일~30일

◎ 공지사항

1. 8월 생활실천표어 / 남자답게 강건하라
2. 신앙서적 /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전도법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 전역 / 정성청년 - 7월 30일 해병대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